

## 신 교육체제 수립에 따른 가정과 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 I. 서 론

지난 5월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 교육체제 구상의 배경은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 문명의 대 전환과 정보화·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 현재 한국의 교육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그 해결책으로 신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되며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富),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사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첫째 : 국민 공통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의 상향추세로서 과거 공통교육과 생업교육수준이 현재 중등교육수준에서 고등교육수준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급속한 정보화 사회

에서는 성인의 재교육이 삶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재교육, 평생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에 도입되어 전통적인 교육제도 운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첨단 정보화 기술혁명에 교사의 역할, 공부하는 장소로서 교실의 개념,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아직 세부적 대안이 확립된 것은 아니나 초·중·고교의 교육체제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의 교육체제도 대폭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정과 교사의 양성체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가정과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考)에서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중등 교육개혁 방안 중 가정과 교육관련 분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정과 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원고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하나의 대안에 불과함을 밝힌다.

### II.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중등교육 개혁방안

신교육체제의 기본 목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추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와 기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학교의 교과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이러한 목표구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기능으로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선정이 있으며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개선의 기본 골자는 필수과목의 축소 및 선택과목의 확대이다. 이러한 필수와 선택의 결정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현행 고교 일학년 수준으로 낮추어 일학년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 위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 부터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과 상담교사, 순회교사, 산학겸임교사, 복수 전공교사 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며 이동식 수업을 도입한다. 이러한 교과과정 운영은 고교교육과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정과 교사의 양성도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교사의 양성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정도 교육부와 일괄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던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변경시키고 있다.

### III. 중등교육개혁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전망

이상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실현될 경우 가정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교육개혁은 가정과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가정과 교육이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과로 인식이 된다면 가정과 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목이 축소 또는 도태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므로 선호하는 교과목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과로서의 선택과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는 교과로서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과 중학교의 가정교과는 보통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지만 고등학교의 교과는 진로와 연결된 교과로서의 성격이 필요할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따른 원칙은 첫째 필수 교과목의 대폭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 둘째 정보화·세계화 교육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설정 등이므로 이에 따른 가정과 교육과정은 필수교과목에서 선택교과목으로의 전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설치는 가정교과 중 분야별 교육과정이 설정되고 이 과정이 수준별로 다양하게 설치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설정은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될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서 1995년 연말까지 기본 골격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의 교육과정의 기본골격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확실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보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많은 주가 중학교 수준인 7-8학년의 경우 가정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으며(윤 인경, 1994) 고등학교 수준인 9학년-12학년에는 100여개가 넘는 선택과목 중 가정관련 교과목인 일반가정학, 소비자 교육, 의류학, 식품영양, 주거학, 가족발달, 아동학 등의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 중 몇 가지를 단위수 별로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가정-기술이 남녀 공통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보통교육에 관한 과목으로 ‘가정일반’ ‘생활기술’ ‘생활일반’이 개설되고, 직업

교육으로서는 '가정 정보처리'부터 '아동복지'까지 26가지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한 옥수, 1994).

앞으로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과정이 이처럼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경우 교사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순회교사·시간제교사·산학겸임 교사·복수전공교사 등의 제도활성화로 해결하고 이동식 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및 평가, 학년별·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가정과 교육은 전통적으로 실업교과에 속한 만큼 직업-기술교육체제의 체계화에도 연관성이 있다.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직업-기술교육체제의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기술교육체제의 체계화 원칙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정비와 자격획득과정과 직업-기술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업-기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직업-기술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므로 가정교육과 관련된 국가 기술 및 기능 자격의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중등교육과정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도 가정과 계열학과로는 '가정과' '피복과' '보육과' '식품과' 등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실업고등학교에 조리과, 의류학과, 실내디자인과 등이 개설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는데 직업교육프로그램도 세분화하여 직업-기술교육의 기능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IV. 교원 양성·임용제도

교원 양성·임용제도는 전문직업으로서 교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체제와 교직사회에 새로운 인적 자원을 충원하는 제도로서 교사양성체계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폐쇄형이란 교사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기관(교육대, 사범대 등)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이고 개방형이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양

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2).

현재 가정과 교사 양성체계는 가정과 관련학과인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농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이 가정과 교사자격을 위해 취득해야하는 교과목(현재는 식품영양, 가정경영, 피복학, 주거학 등)만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정과 교사의 자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신규채용 후 5-10년 이내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을 이수하면 1급 정교사자격을 획득하며 더 이상의 의무적 연수는 없다.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일반연수로 60시간 분의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서울특별시 교원 연수원, 1994).

따라서 교사로 임용된 후, 단 한번의 연수를 받은 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정년 퇴직 때까지 연수를 받지 않고도 교사직을 수십 년간 유지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특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고 연수기회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연수간 교사의 현장 재교육의 성격보다는 상위자격 취득 위주로 운영되고 연수내용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부족하여 연수가 일종의 통과의례로 형식화됨으로써 실질적 능력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1).

교육개혁안은 현재까지의 교사양성체계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으로는 앞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화 추세와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확대 및 중등학교 선택교과제 도입과 앞으로 순회교사 또는 복수전공교사, 시간제 교사제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와 같은 교원양성체계로는 교사 공급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양성체계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복수전공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수전공교사 등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과 교사의 양성과정에서 가능한 상황과 문제를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통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체계를 통해 교사임용을 실시하는 개방형으로 전환될 경우 각 교과목의 교과과정 관련학점을 대학에서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교사를 임용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된다면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라는 폐쇄형 교사양성체계는 사라지고 초·중등학교 가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수준의 교과목을 이수한 누구에게나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사 임용교사를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혁안의 계획대로라면 이제는 가정과 관련학과뿐 아니라 누구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가정과 교사로서 필요한 일정한 교과목만 이수하면 가정과 교사가 될 수 있게 된다.

둘째, 만약 이러한 체제로 교사를 양성하게 된다면 각 교과목의 전문성을 사실상 대학교육차원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더욱 전문화된 지식, 태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이나 상위 연수기관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가정교과가 지역사회 의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중요과목으로 채택되고 선택교과목에서 학생의 선택이 많아지면 각 학교의 전담교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부선택교과로서 전담책임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지역별로 순회하며 가르치는 순회교사제도가 채택되거나 타 교과목도 복수로 가르치는 복수교사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교사는 한 교과목의 자격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교과목을 복수로 전공하는 교사로서 복수교사 자격증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만약 복수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관련 계열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복수전공을 허용하여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의 획득이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교사의 임용의 경우는 대학에서 복수전공자격자로서 복수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양성할 수 있으나 현재 이미 임용된 교사의 경우에,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대폭 변화할 경우 이 교사들의 수급이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상당수의 교사가 순회교사로 전환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연수

제도를 통하여 복수교과를 가르치는 복수전공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정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의 통합 등으로 기술교과 또는 컴퓨터 교육과정의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교사가 담당할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축소 등에 따른 전문교과의 교사를 모두 초빙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95학년도부터 이미 가정교과의 남녀 공수가 시작되자 일부 남자중학교에서는 신규로 가정과 교사를 채용하기 보다 시간강사로 대체하던가 기술과 교사가 담당하기도하는 등의 예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넷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교사가 2-3과목을 복수로 가르치게 될 경우 교과내용의 전문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전공교사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품격을 갖추고 각 분야의 탐구능력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전공영역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한 과목만을 이수한 교사가 중·고등학교의 식품영양관련 교과내용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 배경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데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현재에도 실제로 의류학과 전공자는 식품영양분야의 관련과목을 한과목만 이수하고도 식품영양분야를 가르치 있으며 식품영양학 전공 가정과 교사는 의류학 한 과목만을 이수하고 의류학 분야를 모두 가르치고 있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V.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연수

### 1.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교사양성체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은 자명

한 일이다(이 현숙, 1994).

현재까지는 가정과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가정과 교사 자격증 취득학과의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성 화경, 1990; 최 옥자의 2인, 1991). 특히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는 교과목의 교과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이 현숙, 1994).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는 식품영양, 피복학, 가정경영, 주거학의 네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사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 정, 김 경애, 1993).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가사 교과목까지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경우 가사교과목의 내용은 식생활과 의생활 분야의 지극히 전문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앞에서 제시한 네 과목을 이수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특히 고등학교의 가사교과목의 수업내용은 교사가 식생활 또는 의류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경우는 내용을 교육하기에 전공지식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몇 가지 새로운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정의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현재의 가정과 교사 자격이수 과목인 식품영양, 피복학, 주거학, 가정경영 외에 가정과 교육론 또는 가정과 교수법, 그리고 가정학원론 등의 과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학교의 가정, 고등학교의 가정일반의 교과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 가정·가사교과가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내용이 분화될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교사자격증 즉 식품영양교과, 의류학 교과, 아동학 교과, 가정관리 교과, 소비자교육교과 등의 교과교사자격증을 신설하고 이에 상응한 교과목을 이수한 후(4-5과목) 이러한 교과목을 대학에서 복수전공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중학교 교사 자격증과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분리하여 중학교의 경우는 재사범대학 가정과

육과 등에서 교사를 배출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선택과목에 따른 전공교과별 교사자격을 이수도록 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소정의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수료한 사람에게 교사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앞으로는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전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석되고 학부과정은 전문인 양성보다는 교양인 양성적 성격이 더 부각될 것이므로 교사자격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은 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의 필요과목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중학교 가정, 가정일반 교과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식품과 조리학, 영양학, 의복관리, 의복 디자인 및 구성, 주거학, 가정관리, 소비자학, 가족학, 인간발달, 가정과 교육론, 가정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의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이수과목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과목들이 전문화될 경우 각 전문교과목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5-6과목 선정하고 가정학원론이나 가정과 교과교육론 등은 공통필수로 선정하면 가정계열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계열과 연계하여 가정과 교사자격증과 식품영양교사 자격증 또는 아동학교사 자격증 등으로 2-3개의 교사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교원 연수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주기로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며 선택교과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연수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첨단 정보통신 공학을 활용하는 원격연수도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취득한 담당교과 관련 학위와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과정 이수결과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일반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적된 연수결과를 교원의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일반연수 및 자격연수시 교원이 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기관의 경쟁을 통한 연수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과의 경우 앞으로 고등학교 가사교과 등이 분리되어 다양한 선택과목이 될 경우 이 과목의 새로운 자격취득을 위한 재교육 연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은 대학원과정이나 사회교육기관

의 전문과정 이수를 통해 관련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원 과정일 경우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관련교과목의 결정은 학회차원 또는 각 대학원 차원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 경우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및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타 연수기관을 통한 자기계발노력이 승진이나 인사에 차등적으로 반영이 되어 노력하는 교사, 능력있는 교사가 인정받는 체제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는 현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의 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안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미래의 교육을 위한 기본 철학이 잘 담겨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시행과정에서 착오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적지 않으며 이의 시행이 성공적일지라도 일말의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정교과의 방향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양성체제에도 대단한 변혁이 요구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수년간이 가정과 교육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의미를 축소시키느냐의 심각한 기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 가정학을 전공하는 모든 이들이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실로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점을 실감한다. 가정교과가 타교과와의 경쟁 그리고 타전공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 진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로 되기 위해서는 교사자신의 부단한 노력을 통한 교육의 충실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대학의 입시에 관련이 되는 교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가정계열 대학들이 입시에서 고교과정의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성적을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 교육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참고 설명자료 1995.
- 김 갑영, 김 경애, 이 전숙,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조사연구' 가정과 교육학회지 3권 1호, 1991.
-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1994년도 연수 운영계획, 1994.
- 이 연숙, '6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교육방안' -가정-대학에서의 교육방안 92년도 제4차 학술대회 자료집, 가정과 교육학회, 1992.
- 이 정, 김 경애,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한 연구' 가정과 교육학회지 4권 1호, 1992.
- 윤 인경, '미국의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학회지 6권 1호, 1994.
- 교육부, 초·중·고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자료, 1992.
- 한 옥수, '일본의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학회지 6권 1호, 1994.